

## 국내 차 품평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차계에서 '품평(品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품평이란 차의 맛과 향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그 결과가 제다 방법과 차의 가격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문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차 품평 기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품 검사 표준'을 공포해 차업 검사 표준을 제정하고 전국적 규모의 차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차업 이론 분석' 프로젝트를 주관해 차의 맛과 색, 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해 오고 있다.

### 우리에 맞는 차 품평은?

지난 6월 17일, 한국차학회는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차 품질평가 방법 현황 및 기준안 설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차 품평 현황과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는 품평 기준안을 설정해 보자는 시도였다.

이 자리에서 양원모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품평대회는 아직 한국 차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품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한국 차의 특성묘사분석용어를 제대로 정립하고 한국 차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차 품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차학회차업연구소장 정인오 교수(한서대)는 "올바른 차 품평을 위해서는 한국형 전문 품평도구가 많은 연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남농업기술원 차 시험장 신기호 연구원은 "숙련되고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원에 의한 관능검사 결과와 과학적으로 측정된 품질의 특성이 충분히 조화로운 연계를 가질 때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각각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일본과 대만, 중국의 품평 기준과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품평의 기준을 비교한 후 '차의 형태(15%)와 색택(15%) 수색(20%) 향기(20%) 맛(30%)을 평가하는 '특차 관능 평가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차학회 신기호 회장은 "학자들마다 '단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양한 기준으로 품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해 기준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차 품평 기준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모임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준안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ky@buddhapia.com

# “우리차는 우리 기준으로”

## 제다 방법 · 가격 형성 등 차문화 발전에 중요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평(品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품평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 차 품평회 현황

우리나라의 차 품평은 일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 차 축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차에 대한 품질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시했으나, '맛있는 고유의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의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실제 품평에 활용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차 품평대회를 꾸준히 열고 있는 곳으로는 한국차인연합회를 꼽을 수 있다. 한국차인연합회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 '차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그 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 중 '올해의 명차'를 선정하는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또한 차인연합회는 1999년부터 보

성차축제 기간 중 '국제명차품평대회 한국예선전'을 개최해 국제 품평시장에 선보일 우리 차를 선발하고 있다.

차 축제를 열고 있는 보성군과 하동군 등은 행사기간 중 지역에서 생산된 차를 중심으로 품평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 문을 열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과 순천대학교 한국차연구소, 한국차생산자연협회 등도 독자적인 품평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차 품평회인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가 열려 일반인들에게 차 품평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래 들어 이렇듯 다양한 차 품평 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차 품평에 대한 개념과 용어, 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품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차를 품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우전통차제다교육원장 해우 스님은 "차 품평회가 많이 열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품평회에서 제시한 품평기준이 하나같이 중국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중국차와 우리 전통차와는 엄연히 제다법이 다르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맛과 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차 품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 단체별로 이뤄져 제각각 일본 중국의 기준 적용도 문제 “소비자 기호 반영 못하고 있다” 단일 · 다양 떠나 필요성은 공감

통일된 기준안이 없다보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차 품평회가 나름의 기준으로 차를 품평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같은 차라도 품평 심사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이 들쭉날쭉 매겨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해우 스님은 "차 품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 품평대회에서 수상한 차를 제다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일부 제다업체들의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외국의 차 품평 어떻게 이뤄지나?

차 품평의 목적은 차의 품질을 평가하고 제다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차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 품평방법은 세계적으로 차 무역이 시작된 18세기 초부터 그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홍차의 주요 소비국인 영국은 1725년 수입 차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으며, 미국은 1883년 국회에서 차업법(茶業法)을 제정해 차 수입을 단속했다. 일본은 1879년 '차 공진회'란 이름의 품평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즈오카현 등 차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품평방법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1915년부터 수입 차에 대한 단속은 물론 규정된 품질 외의 차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1950년 북경에서 '제1 전국 상

조선시대 ⑨	신식(1551~1623): <가례연해>에서 점도에 관해 썼다.	장현광(1554~1637): 제례 때 차를 드리는 일에 관해 썼다.	도동(1543~1605): <고반역사(考槃餘事)>와 <다설(茶說)>을 찬술했다.	서우천: 의흥의 도공으로 시대 빈에게 배워 크게 발전했다. 수많은 변형과 명품을 남겼다.	품평정(1546~1605): <쾌설당집>과 <쾌설당만록>에 차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특히 품다(品茶) 초다(炒茶) 장다(藏茶)법을 잘 썼다.	정운봉: 화가로 차를 좋아해 '옥천평다도(玉川烹茶圖)'를 남겼다.	탕현조(1550~1616): 희곡작가				
일본에서는 차생활이 확대되면서 자국의 이론이 자리 잡고, 특히 고려다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① 부휴선사(1543~1615): 대둔사 송광사 쌍계사 등에서 차를 즐겨 마셨다. 벽암(碧巖)·취미(翠微) 등의 제자를 두었고 다시를 많이 남겼다.	② 사명대사(1544~?): 임란 때 승군(僧軍)을 이끌었으며, 다시를 남겼다.	③ 허준: <동의보감>을 완성했으며 그의 화제(和劑) 중에 차맛이 들어가 있다.	④ 김장생(1548~1631): <가례집람도설>에 차를 타서 다례를 지내는 내용이 있다.	⑤ 심사량: 의흥 도공으로 '심다소'라 불렸으며, 작품이 금석(金石)처럼 견고했다.	이중방: 이무림의 아들이며 시대 빈의 문하로, 손꼽히는 명장이다.	⑥ 고전직부: 리후의 제자로 무사다법을 성립시켰다. 초암차와 서원차의 다법을 전했다.	남방중계: 남종사의 암주로 <남산록>을 남기고 자취를 감쳤다.	⑦ 산상종이: 리후의 제자로 25세에 차 모임을 가졌고 풍신수길의 다(茶頭)로 있었다.	⑧ 고려다원에 관한 열의가 극도로 높았으며, 이는 임란 때 그들이 자행한 도자기 탈취의 배경이 된다.	⑨ 상권대예절다도학
⑨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조선시대	1543 부휴선사(浮休禪師) 출생 ① 1544 사명대사(四冥大師) 출생 ② 1545 사신밧이 대례 주대례 왕의 약에 차를 약재로 넣다 1546 허준(許浚) ③ 1548 김장생(金長生)의 출생 ④ 1551 사명당 신씨 ⑤ 신식(申湜), 장현광(張顯光) ⑤	1540 경덕전 도공을 약할 1543 도승(屠僧)의 출생 ⑥ ⑦ 서우천(徐友泉)의 활동 ⑦ 1546 품평정(攄夢淸)의 출생 ⑧ 1547 정운봉(丁雲鳳)의 출생 ⑨ 1550 탕현조(湯顯祖) ⑩ 1552 포루투갈, 마카오 점령 ⑩ 심사량(沈士良), 이중방(李仲芳) ⑩	1542 고전직부(古田織部) ⑧ 1544 남방중계(南方宗啓), 산상종이(山上宗二) 출생 ⑨ ⑩ 맛은 차회와 고려다원 ⑩								

##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현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음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실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 344~413)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비로소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품반야경』·『묘법연화경』·『아미타경』·『유마경』·『금강경』, 용수의 『중론』·『심야문론』·『대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번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의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상적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고 있다.



요산지안(婁山志安) 스님 | 통도사 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총림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겸 통도사 반야암 회주로 계신다.

자음(自音) 스님 | 철오(鐵湖)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경주) 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곡선원과 해운정사에서 인가,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총림 은혜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200 전승 (02)420-3400 http://www.bulkwang.org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 진안 마이산 탐사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

기묘한 신이 있어 좋고, 불기시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